


발행인 인사 '건강한 공동체의 세계관

건강한 공동체의 세계관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며

발행인 김승욱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지는 올 한해 “건강한 공동체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각 분야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창 2:18), 고대 그리스·로마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인식했습니다. 또 한자의 사람 인(人)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신자 비율은 불과 50년 사이 22%에서 50%를 웃돌게 되었고,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8%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30%,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40%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47%, 특히 수도인 스톡홀름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비율이 유형 중 가장 높아졌고, 2012년에는 25%를 넘었습니다. 아직 스톡홀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빠르게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30년 정도 늘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1/3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독거노인의 비중은 1900년 10%에서, 2000년 62%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들은 빈부에 상관없이 하루 20시간, 깨어 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홀로 지내고 있으며, 혹한이나 폭염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데, 에릭 클라인버그(Eric Klinenberg)에 따르면 1995년 시카고의 폭염으로 수백 명이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집

안에서 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혼자 살고 혼자 죽는 사람들의 조용한 사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더 많은데, 통계에 의하면 아무도 시신이나 유품을 찾아가지 않아 미국 행정관청에 인도된 노인 사망자 중 80%가 남성이었습니다. 재혼이 비교적 많은 미국에서도 사별 후 재혼하는 노인 비율은 남성 20%, 여성은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병 수발에 지쳤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독거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1900년경에는 홀로 된 할머니의 70%가 자녀와 함께 살았는데, 현재는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경제적 여건 개선 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독신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단지 고령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젊은층의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클라인버그는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개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 그것입니다. 여성의 교육 기회와 직장이 확대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이 크게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비슷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가진 도시 독신남녀들의 하위문화가 체육관, 커피숍, 클럽, 술집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혼자 사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섹스 인 더 시티>에서처럼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혼자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957년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독신주의자를 “환자” 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설문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독신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개인주의 예찬”(the cult of the individual)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고, 급기야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



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경제학자 슈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년)』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냉혹하고, 계산적인 문화는 결국 집단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가족의 유대 특히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뒤따르는 책임을 엄청난 개인의 희생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보살핌의 의무가 없는 편안한 삶”과 “점점 매력적이고 다양해지는 다른 생활을 즐길 기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그의 이러한 예측은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급자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문학 비평가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은 “미국에는 자립이라는 종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개인주의를 “미국적 생활의 위대한 좌우명”이라 하였고, 역사가 데이빗 포터(David Porter)는 “미국인들은 개인주의를 신성한 용어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전통이 경제 성장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복지국가사상은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주의로 흐르는 병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삶이 개인 위주로 파편화되어 가고, 공적 생활은 약화됩니다. 이런 사회에는 헌신이라는 가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나이가 들면 힘들다고 손자를 봐주기 싫어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다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또 개인주의는 자율성이 있어야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심한 굴욕과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는 매일 노인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일주일에 한번 냉동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반발도 심했고, 음식을 데우는 과정에 화재 발생이 잦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를 해결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해진 일정 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와 놀아주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복지국가 이념, 개인주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혼자 살기라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지



만, 역시 가정을 중시하는 성경적 견해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22.3%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자의 23%,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앨버트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에디슨, 거부 중에는 금융 황제 마이어 로스차일드와 석유 황제 록펠러, 영화 분야에서는 스티븐 스피버그, IT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서기 70년에 멸망하여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언어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부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1948년에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고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다른 민족은 고난 앞에 물라했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힘을 교육과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면서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교 율법을 통해 선민사상을 가르치며, 단합하고 협력했습니다. 즉 신앙의 힘으로 연대하는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이 노예로 끌려가면 인근 유대인 사회에서 7년 안에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공동체로 찾아오도록 하였고, 기도문과 <토라> 독회를 일률적으로 통일했으며,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 열 명이 상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120명 이상이면 독자적인 센터를 만들어 유대인법을 준수시키고, 독자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어 비상품을 비축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유대인을 방치하지 않았으며,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유대공동체에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자적인 유대인 자녀 교육기관을 만들어 경영할 의무를 공동체에 부여했으며, 가난한 가정의 아이를 위한 무료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로 이미 중세 시대에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질서를 형성하면서도 공동체라는 끈을 놓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개인주의에 의해 공동체가 무너지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서로 모순적인 이 두 가지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의 모순을 해결하듯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빛어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갈등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